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출장 목적

출장자	소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위	연구위원	성명	김경희
출장기간	2017.9.6.(수) ~ 9.9.(토) (3박 4일)		출장지	베트남		
출장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의 위탁과제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인지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와 관련하여, 선정된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에 건립된 해외농업기술센터인 KOPIA 방문 ○ 베트남 KOPIA센터에서 수행 중인 ‘한국 우수품종 및 재배기술을 도입한 베트남 채소개발’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위해 KOPIA 파견 한국인 담당자 및 현지 베트남 농업연구소(FAVRD) 관계자, 그리고 사업 시행 지역마을 현지 남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해당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 진행 과정 내 성인지적 상황을 파악, 성인지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출장 일정

일정	대상자	소속	시간	성함 및 성별	
9월7일 (목)	○ 현지 파견 담당자	○ 베트남 KOPIA	10:00~12:00	박광근 소장	남
	○ 현지 협력과제 수행 과제책임자 면접조사	○ 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	14:00~16:00	Ngo Thi Hanh	여

일정	대상자	소속	시간	성함 및 성별	
9월8일 (금)	○ 현지 주민	○ 현지 여성 주민 면접조사 - 시범재배 농가 여성농업인 5인	09:00~ 11:00	Nguyen Thi Xoa	여
				Ta Thi Hoi	여
				Nguyen Thi Thanh Binh	여
				Pham Thi Luong	여
				Nguyen Thi Tap	여
		○ 현지 남성 주민 면접조사 - 시범재배 농가 남성농업인 5인	15:00~ 17:00	Nguyen Van Mai	남
				Ta Van Bo	남
				Ngo Van Luyen	남
				Nguyen Van Manh	남
				Nguyen Van Le	남
				Tlan Ngoc Lien	남

해외출장 보고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인지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베트남 출장 보고서(2017. 9. 6 ~ 2017. 9. 9)-

2017. 9.

I. 출장개요

가. 출장과제명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인지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나. 출장배경

- 농진청이 추진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농업기술 공여 및 권역별 농업현안 해결을 주도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해외농업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UN을 비롯한 OECD DAC에서는 국제사회 개발협력사업(ODA)을 추진함에 있어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도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여성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등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농진청의 KOPIA센터 사업들이 수원국 현지 주민의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이런 목적 하에 여러 사업들 중 KOPIA 베트남의 ‘한국 우수품종 및 재배기술을 도입한 베트남 채소개발’ 사업이 선정됨

다. 출장목적

- 베트남 KOPIA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수행 중인 ‘한국 우수품종 및 재배기술을 도입한 베트남 채소개발’에 대한 세부 사업별 추진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등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OECD DAC에 근거하여 실시
- KOPIA센터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 관계자(공무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KOPIA 사업의 현황을 듣고, 성인지적 접근의 필요성 및 실제 이와 관련된 추진 내용들 등에 관한 상황을 파악
- KOPIA센터와 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 수혜자이면서, 참여자인 현지 마을주민 남녀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의 동기 및 이를 통한 성과, 그 과정에서의 성별 차이와 성 불평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의 필요성 확인

- 위와 같이 KOPIA센터 직원 및 베트남 현지 관계자, 시범재배에 참여한 남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농진청의 해외농업기술사업에 있어 성인지적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수행

라. 출장개요

- 출장지: 베트남

- 출장자: 1인

<출장자 명단>

이름	소속 및 직책	역할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농업 현황 분석 • KOPIA센터 관계자 면담 • 현지 지역의 마을주민 남녀 면담 • OECD DAC에 근거한 평가

- 출장기간 및 일정: 2017.9.6. ~ 2017.9.9. (3박 4일)

일정	대상자	소속	시간	성함 및 성별	
9월7일 (목)	○ 현지 파견 담당자	○ 베트남 KOPIA	10:00~ 12:00	박광근 소장	남
	○ 현지 협력과제 수행 과제책임자 면접조사	○ 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 (FAVRI)	14:00~ 16:00	Ngo Thi Hanh	여

일정	대상자	소속	시간	성함 및 성별	
9월8일 (금)	○ 현지 주민	○ 현지 여성 주민 면접조사 - 시범재배 농가 여성농업인 5인	09:00~ 11:00	Nguyen Thi Xoa	여
				Ta Thi Hoi	여
				Nguyen Thi Thanh Binh	여
				Pham Thi Luong	여
				Nguyen Thi Tap	여
		○ 현지 남성 주민 면접조사 - 시범재배 농가 남성농업인 5인	15:00~ 17:00	Nguyen Van Mai	남
				Ta Van Bo	남
				Ngo Van Luyen	남
				Nguyen Van Manh	남
				Nguyen Van Le	남
				Tlan Ngoc Lien	남

II. 주요내용

가. 베트남 국가 개요 및 산업 현황

○ 베트남 국가 개요

-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인구 9,340만 명('16)에 54개의 민족(긴족 87%)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토는 33.2만km²이며 한반도의 1.5배에 해당함.
- 인구분포는 도시가 34.6%, 농촌이 65.4%로 나누어져 있으며, 1인당 GDP는 2,215\$(16)임.

○ 토지 이용 및 기후

- 경지의 분포는 북부에서 남부로 뺀 국토에 삼림이 46%, 농경지 29%, 미사용 산지 13%, 비 농경지 11%, 미사용 평야지가 1%에 해당함.
- 베트남의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 사바나 기후, 온대(아열대 하후기후)로 나뉘어짐. 열대 몬순기후는 짧은 건조기후가 특징이며, 사바나 기후는 동계 건조기를 뜻함. 온대(아열대) 하후 기후는 더운 여름과 겨울의 건조기를 포함함.
- 지역별로는 봉따우가 연중 더운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하노이, 빈, 달랏, 라이쩌우 등 다른 도시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뚜렷한 편으로, 4~9월엔 최고 영상 33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며, 10~3월엔 최저 영상 14도까지 내려간다.

○ 산업 현황 및 국교수립

- 농림수산업 (16.3%), 공업 (32.72%), 서비스산업(40.92%)
- 베트남의 대 한국 교역현황(' 16): 수출 125억\$, 수입 326억\$
 - 한국-베트남 총 교역액: 451억\$, 전년대비 23.64% 증가
 - * 대한민국 베트남의 무역수지: 201억\$ 적자('16) [180억('15), 143억('14)]
 - 대한민국 수출품: 섬유· 의류, 전자제품, 수산물, 목재(제품) 등
 - 대한민국 수입품: 컴퓨터등 전자제품, 기계, 철강, 플라스틱 등
-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
 - 1992. 12. 22 수교(북한과는 1950. 1. 30) *금년이 수교25주년
 - * 한-베 FTA 발효(2015. 12. 20)

○ 한국 경제 파트너로서 베트남의 중요성

- 한국의 최대 교역 수지 흑자국: 연 201억\$ (2016)
 -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4위(1위 미국), 수입국 2위(1위 중국)
- 한국의 최대 ODA 지원국: KOICA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 농업분야project는 거의없음(* 최근WB에서 2017년 7월부터 ODA지원중지)

-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대우), 삼성, LG 등
- 동남아 최대 경제발전국가
 - GDP성장률(%) : ('12)5.6 → ('13)5.4 → ('14)6.0 → ('15)6.68 → ('16)6.21
- 세계 최고 청년국가: 30대 이하가 전 인구의 70%
- 동남아 최적 농업생산 및 진출기지로 부각: 차세대 중국
 - 열대-온대 다양한기후,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한류열풍 등

나. 베트남 농업 현황

1) 베트남 농업 개요

- 베트남 농업의 성공: 식량 순수입국에서 주요 품목 수출국으로 전환
 - * 쌀, 커피, 캐슈넛트, 후추 등은 세계 1-2위 수출국
 - 성공요인: 경지할당, 농업투자(관개시설), 농업기술강화
- 문제점
 - 소규모영농: 0.104 ha/호(세계평균1.2)-고생산비, 생산기반 미흡 및 수확 후 손실 극심(20-30%)
 - 가공시설, 유통 및 보관, 냉동시설 등 부족
 - 농업기술 낙후, 고급 농산물 유통 및 관리체계 미흡
- 새로운 도전
 - 주요목표(10년) : 안전식품의 생산성 20% 향상, 빈곤퇴치 20%, 온실가스 20% 감축
 - 농업과 공업(농촌과 도시) 균형발전, 식량안보에서 영양보전, 수출 지향에서 농가소득 증대
 - * 과학기술발전, 중소기업형 농업정책,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2) 베트남의 농업지대

-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5개의 중앙 직할시와 58개의 성으로 구분되어 있음. 농업지대는 지형에 기초하여 8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짐.
- 주요 작물
 - 벼(Paddy), 옥수수(Malze), 고무, 커피, 카사바(Cassava), 캐슈넛(Cashew-nut), 사탕수수(Sugar-cane), 땅콩, 고구마(Sweet potato), 콩(Beans, Soybean)

<표 1> 베트남의 주요 작부체계

	작부 형태	주 적용 지역
1	벼 - 벼 - 벼	남부 평야
2	벼 - 벼 - 채소	남부, 북부(겨울)
3	벼 - 채소 - 채소	북부
4	채소 - 채소 - 채소	고랭지
5	채소 - 전작 - 채소	고랭지

<표 2> 베트남의 주요 채소 작기

	작부 형태	주 적용 지역	생산량
1	가을 - 겨울 재배	북부	가장 많음
2	봄 - 여름 재배	북부	보통
3	여름 - 가을 재배	고랭지	소
4	전 기간 재배	고랭지	소

3) 베트남 농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노동력이 풍부 -경작면적 풍부 -아열대-열대 몬순기후(고산지-온대) -사회적 관습이 한국과 유사(유교 문화)	-영어소통이 어려움 -소규모 영세농 위주 -기계화 미약 -사회간접자본시설 미흡 - 농업기술력 취약
기회(Opportunities)	위기(Threats)
-한국 기업체가 많음 -농업 시장의 다양성 -유통, 가공, 저장 분야 시장이 큼 - 한국 선호도가 높음(K-POP, 한식) - 한국 우수 농자재 및 농업기술 필요 -고도 경제성장 지속	-부정부패가 심함 -국가에 대한 애국심 미약 -주변국가와의 영토 분쟁 잠재 -농업분야 자본 투자 빈약 -농촌인구 과다로 저임금 지속

4) 한국 농산업계 진출 유망분야

○ 현황 및 문제점

- ‘도이머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장기간 고도성장
- 생산량 증대, 수출증가와 농촌지역 인프라 개선
- 여전히 품질과 가격경쟁력 취약 및 환경오염 증대
- * 외국계 수출업체의 직접 계약 재배 제한 등 규제 강화

○ 한국과의 협력 희망분야

- 베트남 농산물 수출 증대, 과학기술 및 우수기술 이전
- 베트남 농업, 농촌에 대한 한국업체의 투자확대

○ 유망분야

- 고추, 파 등 주요 양념 채소 생산 가공(계약재배 중심)
- 주요 농산물 냉장, 냉동, 가공 및 유통(수출과 연계)
- * 중국농산물생산.수입여건악화시대체생산기지

<표 3> 한국 농산업체 선호 구매 품목

순위	품 목	수요 국가
1	고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2	고구마	한국, 대만, 중국
3	감자	한국(오리온), 베트남
4	파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5	무	한국 (말랭이용)
6	배추	베트남 (김지용)
7	당근	한국, 대만, 일본
8	양배추	한국, 유럽
9	브로컬리	한국, 유럽, 미국
10	상추	베트남

<표 4> 외국계 농산업체의 현지 생산 형태

생산 형태	비율 (%)	장단점
계약 재배	70	품질 균일, 물량 확보 용이
직영 재배	20	생산비 저렴 (기계화)
농가 구매	10	품질 불균일, 물량 확보 어려움

다. 한-베 농업 협력 현황

1) 한-베트남 농업분야 협력

농업 분야 공적 원조 및 협력의 유형과 관여 조직

정 부 기 관		민 간 기 관		
공적 원조 (ODA)	국제 협력		공적 기여	해외 영업
	다자간	양자간		
국제협력단 (KOICA) 농림축산식품부 ODA 사업	농진청 AFACI 등	농진청 GSP	NGO, 농협 및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 삼원, 상생원 등 생산업체 - CJ, 오뚜기 등 가공업체 - 농어촌공사 등 해외 수주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PIA)			CJ의 KOICA 프로젝트 참여 	

2) 한-베트남 협력 (농촌진흥청)

○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KOPIA)

- 베트남농업과학원과 상호호혜적인 과학기술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 우수농작물 품종 육성, 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해 베트남농업농촌발전지원
- 베트남 연구개발, 지도체계 및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촉진 및 훈련지원

○ Golden Seed Project(GSP)

-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지원으로 해외 중요산업 개발을 위한 산학관연 협력사업
- 베트남 농업 관련 기관과 벼, 옥수수, 감자 등의 적응품종 육성 및 종자생산 협력

○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 아시아 각국(회원국15)의 농식품 분야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협력체 구성
- 아시아 지역권 공동과제 및 국가별 연구개발과제 구분 지원
- 베트남은 9개 지역권 과제 및 3개 국가 과제 수행 중

○ 농진청 해외연수생 연합체(Viet-KoRAA)

- 농진청과 Viet KoRAA 간 지속적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업 협력

<표 5> 한-베트남 협력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내용
베트남 채소 시범단지 조성	2011~2015 (30억원)	시범포 조성, 계약재배 지원, 영농 기술 전수 (농산업체 해외진출과 연계 추진) - 하이중, 호아빈 2개소
베트남 국립 가축질병 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	2014~2017 (28억원)	가축 질병센터, 검역 및 진단 역량 강화 교육

라. KOPIA 사업 및 VAAS(베트남 농업과학원) 소개

1) KOPIA 사업의 배경 및 개요

- 한국의 국제적 역할 강화 및 각광받는 한국 농업기술
 -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원조 수원국 -> 공여국
 -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개도국의 능력 배양 위주로 원조 추진
 - 한국의 농업 발전과 농촌 개발 경험이 개도국 지원의 핵심분야로 부각
- 목적 :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위한 맞춤형 농업 기술 전수와 자원의 공동연구 개발
- 조직: 센터 소장(상주), 연구원(단기파견), 전문가(수시파견)
 - * 책임연구원(석사이상), 선임연구원(학사이상), 연구원(대학재학생)
- 인프라: 지원대상 국가에서 사무실, 시험 포장 및 현지 인력 등 제공

2) KOPIA 사업의 추진 전략



○ KOPIA 베트남 센터

- '09년 5월: 농촌진흥청-베트남농업과학원 간 KOPIA 센터 설립, MOU 체결
- '09년 8월: KOPIA 베트남 센터개소
 - * 현재 3대 박광근 소장('16년 1월~)
- 센터의 주요 활동: 공동연구 수행, 농가 시범 및 지도, 농업기술 자문, 한국 연수 지원, 농업기술 책자 발간,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 세미나 개최, 한-베 친선 활동
- 주요 성과:
 - 베트남 국가 장려품종 등록(송정 무, 하이프라이 고추)
 - 한국참외 우수품종 시범재배(슈퍼007꿀, 참사랑)
 - 채소 시범단지 지원
 - 콩 시범마을 사업 출범식
 - KOPIA 연수생 수료식

○ 베트남농업과학원(VAAS) 현황

- 공식명칭: Vietnam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VAAS)
- 설립년도: 1952년
- 본부편제: 원장 1명, 부원장 3명, 국장 5명
 - * 인사행정국, 과학국제협력국, 대학원, 공보국, 재무국
 - * 대학원교육기능: 박사4년, 석사2년(학위수여: 박사152명, 석사79)
 - * 직원연수: 1,155명(박사515명, 석사640)
- 산하기관: 작물연구소, 과수채소연구소 등 15개 연구소 및 3개 센터
- 직원 수: 3,156명 (교수 26명, 박사 252명, 석사 877명 등)
- KOPIA 설립 전 우리나라와 협력관계: 식물보호 연구소 및 농업환경 연구소와 공동연구 (2003~2008,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

○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환경부(MONRE) 산하

-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농업관련 조직
 - 식물보호국(Plant Protection Department)
 - 축산국(Department of Live Stock Production)
 - 작물생산국(Department of Crop Production)
 - 수의검역국(Department of Animal Health)
 - 농림수산 가공 제염국(Department of Processing and Trade for Agro-Forestry-Fisheries Products and Salt Production)
 - 농림수산물 품질 관리국(National Agro-Forestry-Fisheries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 수자원본부(Directorate of Water Resources)
 - 산림청(Vietnam Administration of Forestry)
 - 수산본부(Directorate of Fisheries)

· 농업농촌개발정책전략연구원(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환경부: 토양관리국, 수자원관리국, 환경자원정책 전략연구

마. 면담조사 결과

○ 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FAVRD) 과장 면담조사 결과

-과수채수연구소에서 참외재배 시범사업을 한국 코피아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연구소에서는 재배기술을 교육하는 업무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연구원은 여성 4인, 남성 2인으로 총 6인이 수행하고 있음.

-한국 참외재배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요구가 베트남 농업인들 사이에서 높은 편이며 여성들이 주고 참여하고 있음. “채소 재배=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있음.

-베트남에서는 재배하는 참외의 생산량이 많고 농업인들은 국내시장에서 소비하기에는 그 양이 많다고 생각해서 수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

-참외를 재배할 때, 밭은 경작하는 일은 농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들이 기계를 사용해서 하고 있음. 여성농업인들 중에는 농기계 사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있고 일본기계를 선호하는 편임. 중국에서 수입한 기계는 가격이 낮은 편인데 무거워서 여성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에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는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가볍고 성능이 좋은 편이어서 여성들이 선호함.

-과수채소연구소 직원들이 성인지 교육, 성평등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음.

-고산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사업을 수행할 때,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효과가 좋음. 그러나 소수민족들은 성평등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로 인해 농업기술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교육을 받음.

-농업기술, 농업지식에 관한 관심은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 요구가 높고 여성농업인들은 학습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분위기가 강함.

-여성은 가족을 위해 농사일 뿐 아니라 가사 등 많은 노동을 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농업인들도 적지 않음.

-베트남은 유교문화가 강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임. 가족 구성원을 위한 소비를 결정할 때 부부가 의논하는 편이며 소비금액이 작을 경우 아내가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농업인들은 무, 참외를 재배해서 판매한 수입을 자녀, 가족을 위해 사용하며 여성농업인들이 소득의 일부를 재투자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 참외를 재배하는 과정은 한국에서 종자를 구매한 다음 재배기술을 교육받아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있음. 한국 참외는 병충해에 강하고 크기가 크며 맛이 좋아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음. 한국스티커가 붙여진 참외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음.

-참외를 포함한 채소재배사업에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은 편임. 따라서 부부가 함께 채소재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개선방안이 필요함.

○ 남성농업인 집단면담조사(FGI) 결과

-코피아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재배기술과 판매시장을 넓히고 싶어서임. 채소재배 이후 수확물을 판매하는 시스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싶음.

-코피아에서 재배기술을 교육받았고 그 결과 이전 소득과 비교해서 30%정도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함.

-참외 당도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면 판매가를 높일 수 있을 것임. 현재의 주요 소비대상이 베트남인인데 수출을 통해 판로를 확대한다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임.

-남성농업인들은 자녀가 3-4명이었고 하루 일과는 오전 5시-9시, 오후 3-6시까지 농사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휴식을 하거나 가사의 일부(청소 등)를 도왔고 하루 수면시간은 7-9시간임.

-한국참외는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인기가 높으며, 한국스티커가 참외에 붙여있으며 믿고 사는 분위기가 있음.

-아쉬운 점은 한국참외 종자가격이 높아 부담이 있으며, 판로개척을 해서 한국참외를 수출하기를 희망하는 남성농업인들이 많음.

-베트남 채소연구소에서 참외재배기술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생의 60%는 여성, 40%는 남성이라고 알고 있음.

-한국참외를 재배한 이후 소득이 높아져서 아내도 함께 교육을 받았음. 월 1회 교육을 받았으며, 재배 난이도는 베트남 참외와 유사하지만 품질이 좋아 만족하고 있음.

-부부가 함께 농사일을 하는 남성농업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 남성이 주로 사용하는 편임. 농기계를 임대할 때,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이웃 농업인에게 부탁해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남성농업인 중에는 유기농 작물재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유기농 작물재배기술을 코피아센터가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농업인이 있음.

-한국참외를 재배한 이후 농가의 소득이 15%-35%까지 높아졌다는 응답이 있었고 부부가 함께 재배기술 교육을 받고 그 기술을 활용한다면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아내와 함께 기술교육을 받게 되면, 채소를 재배하면서 부부가 의논하고 기술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부가 함께 농업기술 교육을 받는다면, 결석이 줄고 교육참석율이 높아질 것임.

-참외재배 기술 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우수품종 농산물(자몽, jack fruit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코피아센터가 교육해 주기를 희망하는 남성농업인이 있음.

○ 여성농업인 집단면담조사(FGI) 결과

-한국참외를 재배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어 좋았고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만족했음. 참외재배면적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한국참외는 베트남 품종(Ngan Huy)와 비교해서 크고 색상이 좋을 뿐 아니라 보관하기가 수월한 편임. 베트남 참외는 마을시장에서 쉽게 팔 수 있으며, 한국참외는 과일가게에 판매함.

-여성은 참외를 주로 재배하며, 수확할 때 남편이 도와주고 있음. 1년에 종사를 3하는데 모두 참여를 재배하고 있음. 남편은 협동농장의 부사장이어서 본인이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있었음. 7시에서 11시까지, 2시에서 5시까지 농사일을 하고 이후에는 가사를 하며 닭도 키우고 있음.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다수는 하루 수면시간이 5-6시간으로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재배작물은 참외를 포함한 채소, 벼이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음.

-농약을 뿌릴 때 사용하는 간단한 도구가 있으며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간단한 도구가 있음.

-참외를 수확해서 협동농장에 판매해 달라고 하거나 직접 과일가게에 판매하기도 함. 한국 참외의 종자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음.

-마을 단위로 있는 농민위원회에서 위원장 역할을 한 적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있으며 농사일이 많아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함.

-한국 참외는 판매할 때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우수 품종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는 요구가 높은 편임.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가 무겁다고 생각하며 기계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으며 코피아센터가 농기계 사용교육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음.

-채소농사와 벼농사를 함께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으며 자녀는 3명-4명이 많은 편임.

-여성농업인 중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마을에서 리더가 된 적이 없지만 리더교육을 받고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이 있음. 남편이 공무원이거나 협동농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 경우, 남편과 사별한 여성농업인들은 받은 경작하는 것부터 씨를 뿌리고 재배하며 수확하는 일 모두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있음.

-여성농업인이 주도적으로 농사일을 하는 경우 재배기술 뿐 아니라 농기계 사용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은 편임.

○ 코피아센터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

- 베트남은 농산물이 주요 수출품이며 30대 이하가 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편임. 최근에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 되고 있음. 벼 생산이 농산물의 50%를 차지하고 한국의 10배 수준으로 쌀생산량이 높음.

- 소규모 영농이 대부분이 농기계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으며, 유통구조가 발달되어 있지 않음. 공무원의 월 평균 소득이 200-300달러이며 채소는 3기작을 하고 있음.
- 농업인들은 협동농가를 통해서 재배기술을 교육받고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맡기고 있음.
- 일부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농기계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남녀 농업인들이 있음.
- 일교차가 커야 참외의 당도가 높는데,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일교차가 적어서 한국 참외종자로 재배하지만 당도에서 차이가 나며 현지에서는 한국참외의 당도를 높이기 위한 재배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음.
- 베트남 코피아센터에는 2017년 기준 총 7인이 근무하고 있음. 소장 1인(한국인), 행정원 1인, 연구원 1인(베트남인), 인턴 2인(한국인), 통역인 2인(베트남인)이 전 일제로 근무하며 소장을 제외한 직원 모두가 여성임.
- 베트남 여성농업인들은 남성농업인과 함께 농업노동을 하며,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고 코피아센터가 제공하는 기술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고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은 편임.

